

가는자만이 아는 깨달음의 길

◇공주 갑사가는 길목에서 일승의 세계를 가리키는 산새 한마리를 만났다.

감성으로 보는 절

<13> 일승의 길목-솟대

왜 사냐 보다 살아있다는 삶의 리얼리티가 더 소중

삶이라는 대명제 아래 잘남과 못남이 있겠는가

낮을수록 삶이 치열하기에 오히려 존재의 무거움이…

얼마전 그림 선생을 하고 있는, 사십대에 갖 접어든 노처녀와 오랜만에 만나 저녁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가 이런 말을 한다. 이삼십대땐 어영부영지내다보니까 고독이란 걸 몰랐는데, 이제 사십줄에 접어들게 되니까 혼자 있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고독이란 것을 실감하게 된다면서 나는 어떠했느냐고 묻는다. 나야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아마 이젠 진짜 시집을 가게 될려나 보다 하며 웃었다. 난 원래 어영부영 지내질 못하는 성격이어서 이십대엔 그저 문학적 감성 같은 것으로 고독을 즐겼지만(고독도 허영일 수 있거든!), 지금은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참 편하다고 했더니, 같이 있던 나와 심성이 비슷한 한 분이, 그건 말하자면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편하게 된 것이라고 토를 달아준다.

나는 원래 외톨이 성격이어서 사람을 즐겨 만나지 않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어쩌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때면, 나는 내 존재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슬프고 괴로워지는 때가 많다. 그리곤 한동안 고독의 심연으로 깊이 빠져들게 된다.

그것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만이 아니다. 나는 직업상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강의랍시고 말의 성찬(?)을 풍성하게 늘어 놓다보면, 또한 내 '존재의 가벼움'을 무겁게 느끼고 혼란에 빠지는 때도 많다. 말의 한계성 때문일까? 존재의식의 충돌 때문일까?

내 주변엔 매일 가슴 아프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또 걱정없이 매일 즐겁게 사는 사람도 많다. 매일을 걱정없이 사는, 나와 가까운 어떤 분이 나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는 꼭 말한다. 재미 있겠네요? 그럴 때 난 아주 난감해진다. 재미? 그런가? 인생이 재미로 사는 건가? 그래, 그런 사람도 많겠지. 그러나 난 도무지 재미란게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에 전혀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존재의 가벼움'의 수렁에 빠져들고 만다. 그런가?

참으로, 산다는 건 묘한 현상이다. 생명이 있는 건(아니,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발상의 전환을 하고 보면 그것도 생명일지 몰라!) 모두 살고 있는데. 왜 사는 걸까? 그러나 왜 사느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삶의 리얼리티'를 빼 놓고는 예술도 종교도 없다는 생각속에 빠져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천한 것이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천할 수록 삶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고상한 사람이 천한 것을 멸시하는 것을 곱지않게 생각한다. 배운 사람의 삶만 우아한 것이 아니라 못배운 사람속에 삶의 리얼리티는 더 있는 것이고, 돈 많아서 잘 사는 사람만이 잘난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고통속에서 나날을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삶이 더 삶의 리얼리티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삶이란 대명제 아래 무슨 잘남과 못남이 있겠는가? 삶은 리얼리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삶의 리얼리티의 전달에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 삶의 리얼리티를 드러내지 않는 예술은 예술의 가치를 잃는다는 것이 나의 예술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는 리얼리스트다. 그런의미에서 절은 내 삶의 리얼리티를 가장 절박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드러내는 삶의 현장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절의 구성은 승속의 분절을 나누고, 불전을 중심으로 한 공간을 중심 공간으로 하여 상위세계로 자리를 매긴다. '부처님'이 계신 곳이니까 중심공간으로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엔 부처님이 아니라, 불상이 있는 곳이다. '부처님'이 계신 곳 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전함에 공양이나 몇푼 집어넣고 흐뭇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주불전의 세계는 중생이 기어코 도달해야 할 구극적인 세계를 표상할 뿐이다. 우리는 미혹의 세계를 머뭇거리는 중생이다. 높은 곳에 있으면 나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절로 가는 길목의 숲속이 내 삶의 현장인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속엔 삶의 리얼리티가 살아있고, 나는 '존재의 무거움'을 깨닫는 것이다.

어느날 나는 공주의 갑사를 갔다. 새로 난 큰 길이 편하지만, 난 가파른 옛 길, 산 길로 올라가다가 문득 놀란다. 새 한 마리가 말 없이 산길의 길목에서 일승의 세계로 가는 길을 넌지시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깨달음의 길은 가는 자만이 알아채는 염화시중의 묵시였다. -나는 오직 가리킬 뿐.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원시불교 가르침 생생

한글대장경의 세계

출요경

세상 밝히는 빛처럼 요긴한 경전 모음집

출요경은 한글대장경의 간행 목록상 19번에 해당된다.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 12가지로 나누고 이를 12분교 또는 12부경이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출요경의 경우 12분교 가운데 아바다나(avadana)에 해당된다. 비유의 경전이란 의미다. 한역자들은 아바다나를 비유경(譬喩經)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비유를 통해 상징적으로 교훈을 주는 형식의 경전을 말하는 것.

출요경은 아함경보다 더 오래 된 경전이라고 생각되는 법구경(法句經)에 나오는 게송과 거의 일치하는 게송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본생담 또는 부처님의 일대기, 불제자들의 이야기를 곁들여 대중교화를 목적으로 갖가지 교훈을 담은 경전이다. 법구경의 게송들이 설해지게 된 배경을 산문으로 기록하면서 그 게송의 의미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출요경이다. 경전은 장아함경과 잡아함경, 잡계경, 구담계경, 수행경, 미륵하생경 등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34품 32권으로 이루어진 출요경은 원전이 남아 있지 않다. 때문에 한역본을 기준한 이 구분을 명확한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구경과 비교할 때는 각 품의 명칭들도 비교적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출요경은 계통적이며 조직적인 교리체계가 들어 있지 않으나 전편에 걸쳐 불교의 근본사상이 생생히 표명되어 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은 게송부분은 원시불교의 내음을 짙게 풍기는데 비해 산문부분은 대승적 색채를 보인다는 점이다.

출요경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 경의 한역과정에 참여했던 승예가 서문에서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이름을 법구록이라하고 그 본기에 관련시켜 이름을 풀어 출요라고 한다"고 한 내용이 그것이다. 즉 이 경은 법구록(法句錄)이라는 이름으로도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법구경의 게송들이 어떻게 설해졌는가에 대한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법구록이라는 명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출요란 단어가 단순히 '빛을 드러냄' '빛을 나타냄'의 의미인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승예의 경우 "출요를 옛날에는 비유라고 했다. 즉 12부경의 제6부다"라고 했다. 즉 아바다나를 출요라 한다는 설명이다. 아바다나를 중국의 옛 번역자들은 대부분 비유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최근의 서양학자들은 '훌륭한 공적' '빛나는 업적'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최근 서양학자들의 해석대로 이해할 때 출요의 이미가 빨리 이해되는 것이다. 실제 이 경의 제6권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소위 출요란 무상품(출요경의 첫 품)으로부터 범지품(마지막 품)에 이르기까지 중경(衆經)의 요장(要藏)을 모두 연설하고 포현(布現)해서 장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출요라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출요경의 성격과 형식을 이해하는 적절한 단서가 된다. 즉 출요란 많은 경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아 핵심을 풀이하고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의미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경의 게송부분은 오랜 경전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산문부분은 그에 비해 늦게 나온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 경이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된 것은 4아함경의 이후로 볼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